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의 김종희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작품은 심훈의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에버그린.

'상록수'라는 소설 읽어보셨죠.

또 읽어보시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대강 아실 것입니다.

심훈의 소설

심훈은 본명이 대섭, 심대섭입니다.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본명을 버리고

훈이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심훈

그리고 중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항저우, 아주 경치가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죠.

항저우에 있는

지강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동녕, 이시영 같은 인물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심훈이 1901년에 태어나서
1936년까지, 3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절을 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30대라고 하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30대는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문학사의
중요한 문인으로 기억하고 있는

김소월, 김유정, 이효섭, 이상,

이런 인물들이 전부
30대에 요절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동주는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29살의 어린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30대에 이들이 남긴 작품이
우리 문학사에

중요한 작품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심훈은 ‘상록수’ 같은 소설이
있는가 하면

시와 수필을 묶은 ‘그날이 오면’ 같은

이런 매우 중요한 작품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23년에서 30년 사이,

그러니까 1901년생이니까
23년이면 한국 나이로 24살이 되겠죠.

그 시기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그때는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또 경성방송국을 통해서
기자 생활을 했고

영화 소설을 동아일보에 연재했는데
‘탈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일본에서 연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먼동이 틀 때’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단성사에서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충남 당진

고향으로 낙향해서

창작에 전념하면서 장편소설

‘영원의 미소’ 또 ‘동방의 애인’

‘직녀성’ ‘상록수’

단편으로 ‘황공의 최후’

이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상록수'는 1935년에 동아일보 주최의

농촌계몽운동 소재

장편소설 현상모집에 응모해서

당선되었던 작품이죠.

사회적으로 농촌계몽운동로서의

브나로드 운동이

한창 시작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농촌계몽운동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심훈은 이것을 소설로 써서

그 운동을 계속하려고 했던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록수'는 농촌계몽을
지향하는 문학작품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은 당연히
계몽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죠.

문학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교훈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쾌락적인 것입니다.

교훈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을 교양하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읽음으로써

거기에서 공감과 기쁨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죠.

'상록수'는 당연히 교훈적인,
계몽주의적인 구분에 속하는 것이고

대체로 이와 같은
계몽주의적 문학은

사실주의적 성격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하르트만’ 이란 사람이

'미학 이론'이란 책에서

“사실주의는 예술의 건전한 경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훈으로서의 문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나 쾌락 곧 향유로서,
즐거워하는 것으로서의 문학은

이것과는 다른 편에 서 있는 형식인데

'상록수'가 서 있는 입지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농촌계몽으로

또 다른 말로는 민족계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훈이 작품 활동을 했던 그 30년대,

1930년대는 민족 최대의 수난기,
일제강점기의 한복판이었죠.

일제는 이 시기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족이라는 어휘를

작품 속에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이라고 하지 못하고

농촌계몽운동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문단의 흐름은

염상섭, 최만식 같은 작가들의

리얼리즘 소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또 그 반대편에는

이상이나 박태원 같은

모더니즘 소설의 흐름을 보여주는

양분된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록수'는 당연히

그 사회의식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 리얼리즘에 관한 작품이고

이광수의 ‘흙’이란 작품은

바로 '상록수'와 유사하게

농촌계몽운동을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흙’ 이나 다른 농촌계몽에 관한
작품들이 계몽의 방향을

농민의 정신을 개조하는 어떤 로드맵,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상록수'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실천의식을 보여준
그러니까 한 걸음 더 진전된

사회적 실천의 형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훈의 '상록수'가 낙후된 농촌을
변혁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되

그것을 젊은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 중심인물은 ‘동혁’ 이란 인물,
또 ‘영신’ 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문사에서 주최한
농촌계몽운동 보고회에서 만나고

이념적으로 공감하고

차츰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해 간다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좋아져서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상과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건전하고 바람직해서

그 생각이 건전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좋아한 경우인가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록수'의 동혁과 영신은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고

그 동지애적 감정이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이런 사랑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지식인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계몽의식을 탈피하고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함께 살면서 농촌을 계몽하는
실천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춘원 이광수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죠. 갱생

새롭게 살아간다는 그 광명은
농촌으로부터 이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런 구호를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데

작중 인물들은 낡은 관습에 젖어있는
농촌을 일깨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훈의 사회의식은
‘영혼의 미소’ ‘탈춤’

이런 작품 속에서도
잘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훈의 유명한 시
‘그날이 오면’ 이란 시가 있죠.

그 시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뭐냐 하면 광복의 날입니다.

이육사가 광야에서 노래한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한
그 천고의 뒤

조국의 광복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천고의 뒤’ 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날, 광복의 날

심훈은 ‘그 날이 오면’ 이라는 시에서

“만약에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춤추고

한강수가 뛰놀고
나는 내 몸의 가축을 벗겨

북을 만들어 치면서
종로 거리를 지나가리라.”

이런 아주 감격적인 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같은
이런 시에 나타나 있는

조국 광복에의 갈구 이것은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 한복판에서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은

심훈이라는 인물이 강력한

항일 저항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죠.

항일 저항시를 쓴 시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면 심훈 외에도 이육사가 있죠.

또 한용운이 있죠. 윤동주가 있죠.

그리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가 있죠.

그리고 김광섭이란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모두 6명이에요.

더 있을까요?

한국 문학사에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항일저항시인 7인집’

같은 것을 만들면

하도 답답해서 여기에

김소월을 포함합니다.

김소월이 저항시를 썼을까요?

‘옷과 밥과 자유’ 같은 시를 보면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길을 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저항이라고까지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실과 말소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말을 지키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저항 의식

그래서 김소월을
저기에 포함할 만큼

저항시의 희소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훈은
강력한 저항 의지를 가지고

시를 썼고, 산문을 썼던
그런 작가입니다.

심훈의 소설은 대체로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 시대의 현실적인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족계몽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추구해 나가는 작중인물들,

사랑이 이룰테면

하나의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만치 않게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록수'가 그렇고

‘영혼의 미소’ 같은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탈춤’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탈춤’은 영화 소설인데

문학적 영역의 다양성과 확대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우리가 지금처럼 살피본 것처럼

심훈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현실에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지식인의 내면 의식을

잘 드러내 보여준

그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상록수'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

그러나 그 속에 영신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도록 학교에,

농촌에 세운 학교의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인식을 드러내 보이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데

미완의 농촌계몽, 미완의 민족 계몽

또 안타깝게 남겨둔 그 미완의 사랑

이런 것이 이 소설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심훈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이 시대의, 그러니까 그 시대죠.

그 시대의 청년들이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시대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관념적 계몽의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축하고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작가는 '상록수'의 주제를

동혁의 대사로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 너희들은 기나긴 겨울에
그 눈바람을 맞고도 싱싱하구나.

저렇게 시퍼렇구나.”
상록수를 보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록수가 비단
나무만 보고하는 얘기겠는가

그 시대의 청년들에게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이처럼 상록수와 같이
싱싱한 정신으로, 시퍼런 정신으로

살아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작가의 소망을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